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 1호 노사상생 일자리 '출발'

어제 준공식 문재인 대통령 참석 ... 23년 만에 국내 첫 자동차 공장 연산 10만 대 규모 ... 직접고용 1000명·간접고용 1만1000명 효과

세계 최초로 자치단체 주도 노사상생형 일자리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공장이 술한 어려움을 딛고 준공했다.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지 7년, 협약을 체결한 지 2년 3개월, 공장 착공 1년 4개월 만이다.

광주시는 29일 빛그린산단 내 GGM자동차 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윤종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31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알리는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데 이어, 2년 3개월만에 GGM자동차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여럿이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즐거워라"를 주제로 열린 이날 준공기념 행사는 축하공연,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과정을 담은 영상 상영, 참석자 간담회,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과 이용섭 시장, 윤종태 의장,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 등이 참여해 그동안 추진 과정과 광주의 도전이 성공한 원동력, 직원들의 소감·기대, 정부의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대화 등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쉽지 않은 여정 끝에 마침내 첫 목격지에 도착했다"면서 "어려운 문제와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

가 적극 중재에 나서 주셨고 이제는 서로 튼튼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 외에도 추가적인 주거 복지 등 사회적 임금을 확대 지원하는데 중앙정부도 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중앙부처에서 국민들이 광주형 경차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을 적극 수용해주시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사업이 성공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2-3년 전만 해도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사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동력은 3가지"라면서 "첫째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이고, 둘째는 노사상생을 위한 한국노총과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 큰 결단, 그리고 셋째는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채택한 뒤 100대 국정과제 포함시켜 적극 지원해 주신 점"이라고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이후 참석자들은 자리를 옮겨 견고·정의의 뜻을 갖는 노라나무를 심는 식수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이날 준공기념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대지면적 60만4338㎡(18만3000평) 규모로 들어선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은 차체공장, 도장공장, 조립공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 1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직접 고용만 1000여명, 간접고용도 1만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차량 양산에 들어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광주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차체공장에서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정세균, 광주서 대권 행보... "국가적 위기 준비된 일꾼 필요"

"대선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지지율 1등 당선된 전례 없다"

총리 퇴임 이후 광주·전남을 찾아 대권 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올 가을을 늦으면 내년이면 코로나19는 극복이 가능할 것이나,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무너진 우리의 일상과 경제, 공동체, 정치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코로나 백신 부족'에 대한 정부책임론에 대해선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실지 모르겠으나 백신이 결과적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 올까 봐 걱정"이라며 백신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 일부 사옥에서 진행된 '김여송 광주일보발행인과의 환담'에서 초유의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지금 위기 상황이 1997년 IMF 위기보다 약한 게 아니다. 그때 위기와 비슷하지만, IMF 환란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 경험 이 쌓여 정부가 재정을 풀고 대출금, 이자 상황을



정세균 전 총리

유예하고 각종 지원책을 펴기 때문에 출도산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일부 기업은 몹시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며 "무너진 우리 일상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경제와 정치의 회복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다음 시대정신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준비된 일꾼,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회의원, 산림부장관, 국무총리로 3명의 대통령에게 발탁된 자신이 책임자임을 에둘러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으로 야권의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치사를 돌아볼 때 대선을 1년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지지율 1등이었던 분들이 당선된 전례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보라. 그분들도

한때 지지율 1등이지 않았다. 그런데 모두 당선은 커녕 중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며 "지지율이라는 것은 결정적일 때 알아야 한다. 또한, 지지율만으로 정치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적폐청산 수사 사죄' 촉구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현 상황에 대해선 "(일각의 전망과 달리) 그분이 국민의 힘으로 가서 대선후보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그룹이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각 추종세력이 있지 않느냐. 그 세력들이 윤 전 총장을 쉽게 수용할까. 쉽지 않다고" 지지율이 좀 나온다고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토부, 광주역 인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정

광주 북구 중흥동 일대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광주 북구 등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만 1000호)을 발표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들 사업은 이미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더불어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사업 유형들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광주 북구 중흥동(250세대)을 비롯한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등 총 20곳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은 대상 면적만 2만300㎡로, 노후도가 77%에 이를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사업 참여자를 밝힌 55곳 중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곳을 뽑았다. 이 사업은 공공은 물론 민간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국적으로 1만 7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옹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7 제2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입선작 김정현·침실습지의 부드러운 아침물결

공모기간
21. 3. 15. 월 - 6. 30. 수

발표일 2021. 7. 16. (금)

참여자격 전국민 누구나

시상안내 18명 선정 / 총 상금 4,000,000원
작품 수준 미달시 아차상 취소 가능

발표안내 홈페이지 및 군 공식 블로그 게재 (개별 연락)
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진 원본파일(3MB 이상)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이메일과 우편접수
이메일 : sangyu100@korea.kr
우편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미래혁신과 스마트홍보팀

제5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PHOTOGRAPHY

#랜선곡성여행

#관내사찰 #제일월섬
#섬진강기차마을장미정원 #섬진강무릉도원